

『인권연구』 9(1): 181-183.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9(1): 181-183.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6.9.1.181>

[서평]

‘같은 언어’ 너머 타자와의 마주침: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홍성수, 어크로스, 2025) 서평

정인경*

차별과 불평등, 혐오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차별과 혐오가 단순히 불평등을 넘어 사회의 다원성을 해하는 해악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과연 그럴까?

홍성수 교수의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은 바로 그 ‘잘 알고 있다’는 착각,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이 우리가 차별과 그 해악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를 더욱 깊게 만드는 문제의 첫 출발점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 책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자신의 위치와 경험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착각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착각이 어떻게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지속시키는지를 성찰하게 만든다. 또한 우리 시대의 차별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온라인 상에서 쉽게 행해지는 노골적인 ‘혐오 표현’과 그에 대한 동조자에 의해 심각해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관행과 제도, 그리고 익숙한 가치관 속에서 ‘숨어서’ 작동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심화되는 자산 양극화와 계층간 단절, 그리고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커져가는 갈등을 생각할 때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법학자의 시각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지나치게 이론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영화 ‘그린 북’이나 ‘노키즈 존’, ‘성희롱금지법’이 제정되기 전후 사회의 비교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실적인 언어를 통해 독자가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사고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차별과 혐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과 제도의 마련이 어떻게 일종의 경고등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정적이지 않고 우리 모두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전체 구조와 문화 속에 다른 위치에서의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한 점도 설득력이 있다. 독자는 책을 읽으며 자신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했던 태도조차 특정한 사회적 위치와 경험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며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이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도 하나의 가치관을 강요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두고 끊임없이 논쟁한다. 다양한 정체성들이 서로 경합하고, 생활양식도 다양해졌으며, 인구 구성도 다양해졌다. 세대와 젠더, 계급과 인종, 민족과 문화가 뒤섞인 사회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다원화가 반드시 타자에 대한 이해와 소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셜네트워크와 온라인 플랫폼이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의 주된 인프라가 되고 ‘익명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 보장의 핵심으로 자리잡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공간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기대어 손쉽게 행해지는 혐오 표현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과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 패러다임의 대전환은 각자 자신과 비슷한 정체성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고 소통하게 만들었고, 결국 나와 다른 타자와 만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편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중심으로 점점 심해지는 경제적 양극화는 단순히 소득의 차이를 넘어 삶의 방식과 인간관계, 정치적 성향까지 분리시키고 있다. 비슷한 경제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서로 다른 계층의 삶을 이해하거나 공감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

고 있다. 과거에는 성별이나 종교, 학력,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았다면, 앞으로는 경제적 능력과 자산 규모에 따른 보이지 않는 차별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주거 환경과 교육 기회, 문화적 경험, 사회적 네트워크가 경제력에 따라 분리되는 현실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를 단순한 경쟁의 결과나 개인의 선택으로 설명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저자가 말하는 구조적 차별의 문제가 드러난다. 차별과 혐오는 언제나 노골적인 배제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너무 익숙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방식, ‘숨은 차별’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정체성의 공존에 비해 아이러니하게도 나와 다른 타자와의 소통이나 유사한 경험의 기회가 부족해진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상대방이 겪은 차별과 불평등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 우리가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은 이러한 시대에 타자, 나와 다른 경험과 정체성을 가진 타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함을 다시금 일깨운다. 자신의 언어와 경험만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적 언어’, ‘간헐 공간’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낯선 타자와 마주해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만남을 가능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내가 보지 못하는 차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함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 타자의 경험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성찰하게 만든다.